

“소리없는 법문을 기록해야겠다”

**김호석화백의
화속속 선지식**
성철스님 ㊦

시간의 흐름을 잊고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인사에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다. 성철 스님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는지 보고 싶지 않나?” 나는 이미 성철 스님 영결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지만 나이 든 아들을 아이로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알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날은 비가 참 슬프게도 내렸다. 나뭇잎들조차 바닥에 누워 우는 듯한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래도록 생각해 봤었다. 해인사 경내에서 치러진 영결식과 다비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다비장에서 마지막으로 할하는 성철 스님의 소리 없는 법문을 들으며 이를 그림으로 기록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들었다. 존경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대중들의 살아있는 눈빛 역시 감동이었다. 그림으로 이를 남기고 싶었다. 그날 저녁 성철 스님을 모셨던 일현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일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성철 스님의 관은 법구처에 실렸고 나는 소변용 그릇 하나만 지닌 채 그 안에서 모시게 되었다. 영결식이 진행되고 다비장까지 약 3시간 정도가 소요 되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스님의 관 위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있었다. 스님께서 열반하신지 7일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그 암흑의 공간 속에서 어떤 냄새도 맡기는커녕 실핏줄이 확장되는 듯한 명징한 기운을 느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세상을 이끈 큰 스님이 임적하시면 길게 방광을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스님께서도 방광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어떤 냄새도 나지 않을 수가 있던 말인가?”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시공간을 하나의 서사구조로 압축해 응축시키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다. 마치 새가 되어 장면을 내려다보듯 표현 대상과 일정한 각도와 거리를 유지하며 이를 그려내고자 했다. 즉 행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광경을 동일한 눈높이에서 이동하면서 포착하는 것이다.

그림을 구성하는 기본 틀은 상·중·하단으로 설정했다. 상단에 가야산 해인사 풍경과 중단에 운구 행렬, 그리고 하단에 다비식 현장의 순으로 배치했다. 그림의 중심 줄기인 운구 행렬은 상단에서 중·하단까지 S자형으로 전개되도록 했고, 하단은 다비가 진행되는 불과 이 불을 중심축으로 추모하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완결성을 주고자 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화면에 두 가지의 다른 장면을 결합시켰다. 다비식장으로 향하는 행렬과 다비식 과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

전체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서사 구조를 띠도록 한 것이다.

먼저 다비장까지는 행렬은 인로왕변에서 장례위원장까지를, 다비식장면은 다비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과 추모 행렬의 맨 마지막을 장식한 비구, 비구니 스님이 도착하는 모습을 그려 전체적으로 영결식 이후 다비장까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다비 장면은 거화되고 난 뒤 5시간 정도가 지난 불꽃으로 형상화 했다. 전체적으로 12시간여의 장면을 하나의 시공간 속에 축약한 것이다. 다비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에는 엄숙함과 아쉬움, 슬픔과 기대 등이 있었다.

작품의 중단부 우측에는 야생동물은 물론 닭, 개 등 가족 등이 등장해 스님의 마지막 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무상계 옆에는 무슨 잔치에 놀러 온 것처럼 두 사내아가가 뛰어가고 있고 그 뒤로 갖가지 색깔 바탕에 시대를 대표하는 글씨로 장식한 만장이 대요를 이루며 하늘과 맞닿아있다. 스님의 영정을 든 상좌들의 모습이 매우 힘겨운 듯 몸이 뻗뻗하다. 그러나 진정 무거운 것은 성철 스님의 영정사진이 아닌, 스님의 죽음이 주는 허탈함이라. 그 뒤로 위패와 성철 스님의 직계 문도, 장의위원들이 뒤를 잇고 스님의 법구를 모신 탑 차가 해인사 일주문 밖으로 떠나는 것이 아쉬운 듯 한참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 그 옆에는 영결식장면을 촬영한 필름을 전달하기 위해 질주하고 있는 퀵서비스맨이 보인다. 하늘에는 빙글을 내며 날아

마치 새가 모든 장면 내려다보듯
12시간을 하나의 그림속에 축약
스님에 대한 그리움 채워 주길 발원

다니는 취재용 헬기가 실황 중계를 하고 있다. 행렬 좌우측에는 만 명의 인원이 각각의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스님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

다음으로 하단부 구성을 설명하면 연화대를 중심으로 장례행렬의 마지막 대열이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연화대는 거화된 이후 6시간 정도가 지난 불길이다.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은 시공간의 초월성을 의미한다. 특히 연화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원형의 군집된 형태는 전체 화면에 힘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인물의 크기는 화면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커지도록 크기에 변화를 줬다. 이는 서서 감상하는 자에게는 아래를 향해 내려오는 인물들의 속도감과 낯설대는 움직임을, 엎드린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동일함을 느끼게 하는 조형적 장치이다.

이 모든 다비식 광경과 사투 다른 설정도 있다. 백련암으로 되돌아가는 스님의 뒷모습도 그려 넣어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며 나무라는 듯한 스님의 목소리로 담고자 했다.

나는 1998년 동산방 화랑에서 이 그림 한 점만으로 전시를 했다. 당시 전시회 방명록에서 일감 스님은 “김호석 화백이 그린 ‘그날의 화엄’은 피로 현서를 쓰듯 손끝을 갈아 피로 쓴 화엄경 변상도”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화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절실하게 살아 왔는지 나를 반성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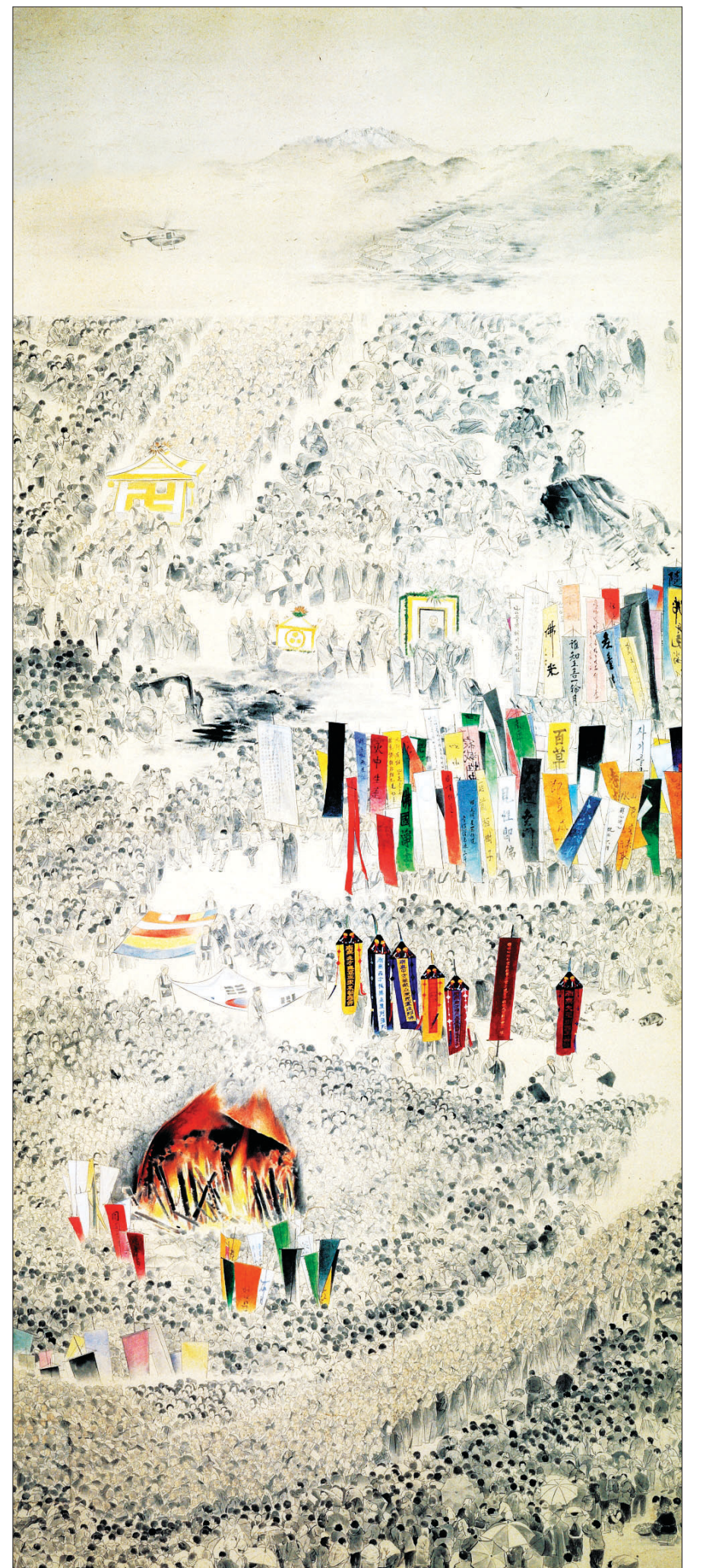
나는 이 그림이 그저 기록화로서 남기보다 성철 스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림이기를 원했다. 깨끗함과 고고함, 진실함, 순결함에 대한 그리움이 성철 스님의 죽음과 함께 떠올랐으면 했다. 바라건대 이 그림이 훗날 어느 구도자가 스님이 계시지 않는 백련암을 찾았을 때 느끼는 허탈감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른쪽 ① 그림 하단 부분 확대. 성철 스님을 보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탄, 아쉬움, 그리움 등의 표정이 제각기 떠올랐다.



오른쪽 ① 그림 중단 부분 확대. 야생동물은 물론 닭, 개 등 가족 등이 등장해 스님의 마지막 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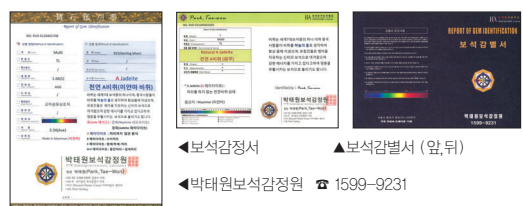
① 그날의 화엄, 365x160cm, 한지에 수묵 채색, 1998년, 해인사 백련암 소장. 이 그림을 본 일감 스님은 “현서를 쓰듯 손끝을 갈아 피로 쓴 화엄경 변상도”라고 말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격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 배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고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 950,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미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인 근조 환관
(직장 날씨가기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인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을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이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슬기 골드(30매)
금액 : 115,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결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